국제 · 지역연구 23권 4호 2014 겨울 pp. 65-101

중동지역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그레이트 게임 (The Great Game)에 대한 분석:

미국의 에너지 벨트 구축 전략과 그 기원

안세현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및 에너지 안보 전략센터 센터장

본 연구는 최근 중동지역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간에 벌어지고 있는 에너지 그레이트 게임의 개념 및 동향을 분석하고, 특히 미국의 지역 내 에너지 벨트 라인 구축 전략과 배경을 면밀히 해부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 중동 전략에 중점을 맞추면서 중동정치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본 논문은 1948년 이후 발생한 여러 유형의 중동문제 근원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을 벌이던 영국과 러시아 및 서방국가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함에 따라 오스만투르크 제국을 해체시킨 이후, 과거 오스만투르크 영토 내 석유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 하기 위하여 무자비하게 혹은 인위적으로 그은 잘못된 국경선 문제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러한 석유정치를 앞세운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이 중동 내 지역정치와 매우 복잡하게 얽혀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중동문제에 있어서 특히 유심히 볼 대목은 서방의 강대국들과 중동 내 석유자원을 보유한 토착 정치 세력과의 이해관계 설정 방식이라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중동지역의 절대강자인 미국의 에너지 벨트라인 구축의 세부적인 전략과 미국의 중국, 러시아,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구사하는 각종 에너지 피벗 플레이(Pivot Play)의 구체적인 전술을 면밀히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중동지역에서 미중러의 힘의 균형은 흔히 이솝 우화에 비유되곤 하는데, 중동지역에서 미국은 늑대, 러시아와 중국은 여우와 산토끼의 역할을 때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요점은 여우와 산토끼가 아무리 힘을 합쳐도 절대 늑대를 능가할 수 없다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향후 중동문제를 인식하는 하나의 거시적이고 정형화된 틀, 즉 중동문제인식의 프리즘(Prism)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 미중러의 대 중동 행보를 예측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동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고, 세계 에너지 지정학의 이해를 도모 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설정한다.

주제어: 중동, 에너지, 그레이트 게임, 미국, 중국, 러시아, 에너지 벨트

I. 중동문제 인식의 틀 설정과 에너지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

지난 100년간 중동지역은 각종 분쟁으로 인하여 지구상에서 국제정치학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혼란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중동분쟁의 원인은 단순히 이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 백 년간 지속되어온 민족, 부족 혹은 종교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중동에서의 분쟁은 일반적으로 유태인 집단과 팔레스타인 집단 간의 충돌 혹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사이의 세력다툼이 전부인 것처럼 지극히 단순하게 비추어지고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동의 정치역사를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 보면 이 지역 내에서의 분쟁들은 석유이권과 관련된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 논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이 중동 내 지역정치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특히 유심히 볼 대목은 서방의 강대국들과 중동 내 석유자원을 보유한 토착정치 세력과의 이해관계 설정 방식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중동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19세기말과 20세기 초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을 벌였던 영국과 러시아 및 서방국가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함에 따라 오스만투르크 제국을 해체시킨 이후, 오스만투르크 영토 내 석유산업을 자국에 유리하게 확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무자비하게 혹은 인위적으로 그은 잘못된 국경선 문제에서 출발 한다라는 점이다.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중동분쟁의 원인을 제공해온 서방국가들을 살펴보면, 시기적으로 1차적 책임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있고, 2차적 책임은 냉전시대 영국을 대신하여 본격적으로 부상한 미국과 소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9·11 테러 사건 이후에는 중국이 서서히 등장하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가 역내에서 영향력 행사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드러나지 않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서로 견제하면서 새로운 에너지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미국, 중국, 러시아의 힘의 균형 논리를 통하여 중동문제를 접근하고, 미중러의 대 중동 전략을 각각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다 중동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1차 세계대전 동안 발생한 수많은 작전과 전투들이 현재 에너지 벨트 라인 구축을 두고서 벌이는 미국, 중국, 러시아의 치열한 에너지 그레이트 게임의 양상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1차 세계대전 중 일어난 주요 전투들과 작전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에도 주안점을 둔다. 또한 본 논문은 중동지역의 절대 강자인 미국의 에너지 벨트라인 구축의 세부적인 전략과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이란,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를 상대로 구사하는 각종 에너지 피벗 플레이(Pivot Play)의 구체적인 전술을 규명하는데도 초점을 둔다.

따라서 본 논문의 전개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절에서는 에너지 그레이트 게임의 핵심인 에너지 벨트 라인에 대한 개념; 중동문제 발단의 원인이 되는 제1차 세계대전시 벌어진 갈리폴리 전투와 가자 전투; 석유 십자군에 관한 설명;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붕괴와 영토의 변화; 중동 지역 내 새로운 국가 들 탄생 등을 살펴본다. 그 다음 III절에서는 중동세력과 이스라엘 간 벌어진 4차례의 중동전쟁 및 미국과 소련의 중동 개입에 대한 배경과 경쟁을 검토해 보며, IV절에서는 미국의 대 중동 에너지 벨트 구축의 전략과 최근 입지를 논의해본다. 특히 IV절에서는, 미국의 중동 지역에서 3개의 석유 강국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를 상대로 역내 삼각관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3개국들을 상대로 각각 어떤 당근과 채찍의 카드를 제시하는지, 에너지 벨트 라인을 구축하는 세부적인 전략들, 최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이상기류현상을 분석의 기법을 통해 다각도로 조명해본다. V절에서는 중동지역 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과, 최근 입지와 전망을 짚어보고, VI절에서는 본문에서 유추한 분석을 토대로 중동문제를 인식하는 3개의 프리즘을 설정해보고 향후 전망과 더불어 미중러의 에너지 그레이트 게임을 총평 해보면서 결론을 맺는다. 마지막으로 또한 본 연구는 중동문제를 미중러의 에너지를 둘러싼 힘의 균형 관점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접근 분석하고, 향

후 중동문제를 보는 하나의 거시적이고 정형화된 틀, 프리즘(Prism)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미중러의 대 중동 행보를 예측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동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도 함께 제시하며, 중동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계 에너지 지정학의 이해 도모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설정한다.

II. 중동문제의 기원과 에너지 벨트

1. 에너지 벨트

서방국가들이 중동 지역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대표적인 세계 산유국들,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가 위치한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과 이라크가 접한 페르시아 만 지역이 수억만 년 동안 거대한 천해수역에 잠겨 있었던 관계로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탄화수소 분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세기 말부터, 중동 지역에서 서방메이저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은 석유확보와 자국 내 에너지 기업들과 관련된 인프라 시설 기업 및 방산기업들을 현지에 최대한 진출시키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방 열강 국가들에게 있어서 지역 내 석유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동쪽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을 시작해 이란, 이라크 에서 서쪽으로는 시리아까지 연결되는 에너지 벨트 라인을 구축하고 이 4개의 국가들과 인접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 선 회유·후 강경, 때로는 무력을 동원하는 방법까지 불사하며, 궁극적으로 자국 편으로 끌어들여 에너지 벨트 라인을 완성하는 것이다.

출처: 구글.

그림 1. 중동의 정치지도

2. 제1차 세계 대전과 갈리폴리, 가자 전투

제1차 세계 대전은 비교적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1990년과 2003년에 각각 발생한 제1, 2차 걸프전과 더불어서 중동 정치와 세계 에너지 지정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제1차 세계 대전은 사실상 이스라엘과 관련된 중동전쟁, 이란-이라크 전쟁, 각종 테러 전쟁을 야기 시킨 중동분쟁의 원초적 발단이며, 중앙아시아 및 아프가니스탄의 국내-국외적 분쟁, 냉전, 최근 미국 중국 러시아의 파워게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이자 근본적인 배경과 원인을 제시한다. 그 이유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국가들이 이 지역 내에 탄생하였고, 슈퍼강대국들이 적극 개입하면서 역내 지정학적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1) 갈리폴리 전투(Gallipoli Campaign)

1차 세계대전 전후해서 중동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했던 서방국가는 단연 영국이었다. 영국은 18세기 말과 19세기에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저지하기 위하여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을 펼쳐오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식민지국가들을 증가시키며 국력을 키워오다가 유럽에서 새로이 부상하는 독일과 오스만투르크를 상대로 프랑스와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영국이 전통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강세를 보여 온 데에는 1차 세계 대전에서 승패의 분수령이 되었던 2개의 전투: 갈리폴리 전투(Gallipoli Campaign)와 가자 전투(Gaza)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두 개의 전투로 말미암아 영국은 대내외적으로 큰 정치적 파장을 겪게 되었다. 대내적으로는 갈리폴리 전투에서 참패로 말미암아 한때 처어칠의 정치 생명이 큰 위기에 빠지기도 하였으며, 가자 전투로 인하여 영국은 대외적으로 12~13세기 때 누린 십자군의 선봉 역할을 했던 사자왕 리처드 1세 시절을 연상시키면서 중동 지역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1차 세계 대전은 사실 국제정치학계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합군은 크게 3개의 전선으로 나누어서 오스만투르크 제국을 공략하였는데, 갈리폴리 전투는 연합군과 오스만투르크가 격돌한 최초의 전선이었고, 일명 터키 전선으로 불러졌다. 그 이유는 갈리폴리 전투가 오스만투르크 지역의 동부전선에 위치한 갈리폴리 반도에서 행해졌기 때문이고, 이 전쟁으로 연합군은 매우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당시 영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갈리폴리 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직시하고 지중해의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갈리폴리의 제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한 영연방 군대와 프랑스의 연합군대는 동맹국이던 러시아와 연계하기 위해 독일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오스만투르크를 효과적으로 침공하기 위해서 갈리폴리 반도에서 전쟁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상륙작전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연합군은 1915년 2월, 3월, 4월 세 차례에 걸쳐서 오스만투르크와 독일의 연합군대의 막강한 화력과 뛰어난 전술을 당해내지 못하며 패배하였

으며, 이후 1차 세계대전 상황은 연합군 측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1915년 4월 전투에서는 영국은 해밀턴 장군 지휘 하에 안작(Anzac) 이라고 불리는 호주와 뉴질랜드 영연방 군대들과 함께 갈리폴리 주변의 각지에 가까스로 상륙했지만 독일의 산다스 장군이 지휘하는 오스만투르크 군 앞에서 전멸을 당하고 이를 진두 지휘한 영국의 군내 수뇌부와 정치인들은 거의 모두 현직에서 직위를 박탈당하거나 강등되는 수모를 겪으면서 제각각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어칠의 정치 생명 또한 지방 서리로 전락하는 등 최대 위기에 처하였다. 또한 갈리폴리 전투는 전쟁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남기게 되었는데, 이 전투로 인하여 연합군 25만, 터키군 25만이라는 전 사상자를 낳게 되었으며, 이 작전의 실패로 인하여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작전까지 군사작전 매뉴얼 에서는 상륙작전은 상륙군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어렵다는 정설이 생기기도 하였다(Callaghan, 2010).

2) 가자(Gaza) 전투와 에드먼드 알렌비(Edmund Allenby)

한편 가자 전투는 1차 세계대전 중 갈리폴리 전투에서 입은 패전의 위기를 모면하고 연합군이 전쟁 승기를 잡으며 극적인 대 반전을 이루어내고, 오스만투르크가 붕괴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전투이다. 본 논문에서는 논문의 국제정치학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앞서 갈리폴리 전투와 마찬가지로 가자 전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중요 사항만 살펴보도록 한다.

가자 전투는 1차 세계 대전 중 1917년 1월에서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전개되었는데, 가자 지구는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중동분쟁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 되는 곳이며 현재 중동 지정학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는 연합군 측에서 전쟁 수행 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영국군과 정치인들은 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 중동지역의 핵심 요충지이기도 한 가자 지구와 베르쉬바 점령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따라서 1차 세계대전 중 벌어진 가자 전투는 현재 중동 문제에 있어서 서방국가들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본격적으로 개입이 시작 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가자 전투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 국경 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한다는

목표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일명 중동 전선이라고 불렸다. 1917년, 영국군은 러시아와 협공을 의도로 전개한 터키 전선과는 개별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영연방 군대들을 독자적으로 이끌고 진격하였는데 터키군이 이 지역에 미리 배치되기 전에 빨리 가자지구를 점령한다는 계산으로 대 공세를 퍼부었다. 영국군은 독일 터키군과 전투를 벌여 1, 2차 전투에서는 크게 패배하였지만 3차 전투에서 대승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의 전세는 이때부터 급격하게 연합군 측으로 기울게 되었다.

우선 가자 제1차 전투는 1917년 3월에 기습적으로 감행되었는데, 독일장군의 뛰어난 전술과 용맹스러운 투르크 군대 앞에서 연합군은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공격이 중단되었다. 그 해 4월 2차 전투에서도 연합군은 예루살렘을 목표로 그 해 4월에 재 진격하였으나 투르크 군은 미리 전투 배치를 마치고 주둔군을 증강 시켰던 관계로, 3일 만에 작전은 실패하고 터키군의 지휘관인 자말파샤가 오히려 반격을 성공리에 하였으며 영국의 장군 수뇌부는 본국에서 직위 해임되었으며 국내적으로도 패배로 인하여 갈리폴리 전투 때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3차 전투에서는 괴벽성격의 소유자인 영국의 에드먼드 알렌비 장군이 새로운 사령관으로 부임 하게 되면서 알렌비의 성격이 그대로 투영된 예상치 못했던 전략으로 연합군을 1차 세계대전 중 치러온 전투 중에서 모처럼 승리를 이끌어내게 하였다. 3차 전투는 실제로 초반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영국군대는 본국으로부터 십자군 미션을 부여 받으면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예루살렘을 점령하라는 압박을 받았으나 터키와 독일군 부대는 이 지역에서도 미리 점령을 하고 전투배치를 끝낸 상태였다. 이때 알렌비는 '사막산악군단' 이라는 획기적인 낙타부대를 창설하였으며 독가스와 전차 군단을 추가로 증강시켰다. 또한 1, 2차 전투 패배의 원인이 물 부족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알렌비는 낙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터키군이 예상치 못하게 몸소 낙타를 타고 터키군의 우물을 새벽에 기습 공격 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 인하여 1차 대전의 전세는 연합군 측으로 기울게 되고, 터키군대는 한없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오스만투르크 제국은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제3차 가자 전투의 승리는 서방국가들과 서방세계로부터 700~800년

전의 예루살렘에서 십자군의 향수를 떠오르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점을 염려한 알렌비 장군은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중동전선에서 승리 후 예루살렘 입성 시 연합군의 석유십자군(Oil Crusade)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장된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특별히 전군에게 당부하기도 하였다(Callaghan, 2010).

출처: http://www.oilempire.us/new-map.html (검색일: 2014/11/27).

그림 2. 석유 십자군

3.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해체 및 신생국가들의 탄생

서방 연합국들은 제1차 세계대전 전쟁 전후 혹은 수행 중에도, 철저하게 이 지역 내에서 석유 이권을 챙기기 위하여 오스만 투르크 제국 내에서 민족 간, 부족 간 이간질이나 왕실을 상대로 각종 회유책을 쓰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쟁 이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영토는 북부 아프리카, 코카서스 지역을 걸쳐 시리아, 팔레스타인,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는데,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연합국 측은 특히 중동지역을 하나의 사막 덩어리로 인지하고 본격적으로 석유 사업과 이권에 필요한 지역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역내 역사, 문화, 종교, 민족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자비하게 국가 간 경계선을 임의로 그어 버렸다.

이로 인해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국가들과 국경들이 만들어지고, 같은 민족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으며, 때로는 대대로 라이벌 부족들이 한 국가에 동시 편성되는 등 예전에 없던 극도의 긴장감이 역내에서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현재까지 중동

출처: 구글.

그림 3.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붕괴와 영토 변화

분쟁의 최고 빌미를 제공해오고 있는, 몇 천 년 동안 존재하지 않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영국과 미국, 서방세계의 도움으로 탄생하였으며, 현재 단일국가 없이 떠도는 인구 최대 민족인 쿠르드족은 이라크, 터키, 이란이라는 서로 다른 국가들에 각각 분리되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다. 또한 역내 대대로 라이벌 구도에 있는 두 개의 무슬림파인 시아파와 수니파는 이라크에서 서로 패권을 다투게 되었으며, 오랫동안 교역 상대 파트너국가였던 현재 이라크 남부 지역에 위치한 바스라와 쿠웨이트는 서로 분리 되었다. 또한 이라크와 사우디 아라비아 사이에 새로운 국경이 생겨지게 되면서 그 이전부터 존재한 부족들의 경계가 마구잡이로 없어지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1919년 베르사이유 조약으로 말미암아, 중동지역에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여러 신생 국가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특히 과거 오스만투르크 제국 국경 내 석유 매장량이 많은 대표 지역인, 바쿠, 모술, 키르쿠크 지역에서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복잡한 종교, 인종적 차이와 특수성, 민족주의

를 교묘히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큰 혼란과 서로간의 폭동을 야기 시키고, 이 틈을 타서 역내석유 이권을 본격적으로 챙기게 되었다(Epstein et al., 2003).

III. 중동전쟁과 미국의 등장 및 미소 경쟁

이스라엘과 중동국가들 간의 끊임없는 전쟁은 사실 냉전시대 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 간의 중동지역에서 세력 다툼과 관련된 대리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지난 한 세기 동안 유태인 집단과 아랍 세력들 간의 충돌은 미국과 소련 등 서방국가들의 의해서 충돌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되었으며,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은 서방국가들로부터 충돌이 가능한 지속적인 정치적, 경제적, 무력적 지원을 받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크게 4차례에 걸친 이스라엘과 아랍세력들 간의 중동전쟁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동전쟁은 서방국가들에 의한 이스라엘 건국이 원인이 되어 이스라엘과 반 이스라엘 아랍국가들 간에 총 4차례에 걸쳐서 발발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당시 아랍국가들의 리더 역할을 해오던 이집트가 직접 이 4차례의 전쟁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이다. 제1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 건국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1948년에 발생, 제2차 전쟁은 수에즈 위기 시, 제3차 전쟁은 일명 6일 전쟁으로, 1967년에, 또한 중동 국가들의 대 서방 석유 금수조치를 야기시킨 것으로 유명한 제4차 전쟁은, 1973년에 각각 발발하였다(Yergin, 2008; Epstein et al., 2003).

먼저 미국은 1956년에 발발한 제2차 중동전쟁에서 존재감을 알리면서 서서히 중동정치 개입의 서막을 알렸다. 미국과 소련은 제 2차 중동전쟁, 일명 수에즈 운하 전쟁에서 이집트,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에 대한 권리를 두고 서로 충돌 하였을 당시, 영국과 프랑스를 중동지역에서 공동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한시 미소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서서히 중동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영국과 특히 프랑스의 영향력은 중동지역에서

미국과 소련에 비해서 전면적으로 약화되었으며, 특히 외교적 주도권과 석유와 관련된 각종 이권을 미국에게 상실하게 되었다.

그 후 미국과 소련은 중동지역에서 각각 절대 강자로 군림하게 되면서 에너지 파워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1973년에 벌어진 제4차 중동 전쟁에서 미국과 소련은 중동전쟁에 본격적으로 휘말리게 되고, 미국은 이스라엘을, 소련은 아랍 국가들을 상대로 경제적 원조 혹은 무기 조달 방식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따라서 중동지역에서 분쟁은 이때부터 더욱더 첨예화되고 고정화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제4차 중동 전쟁은 소련의 대 규모 무기지원을 받은 이집트가 유태인들의 휴일인 욤 키푸르 기간에 이스라엘을 기습 선제공격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전쟁 막판까지 이집트 군이 크게 우세하였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기도 하였다.

또한 주목할 점은, 미국의 1947년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1]과 1957년 아이젠하워 독트린(Eisenhower Doctrine)[2]과 같은 중동지역과 터키지역에서의 공산주의 세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원조 공여 정책 역시 중동지역에서 소련의 중동 석유 산업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 저지하고, 미국의 중동 석유 산업에 대한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한 미국의 대 중동 에너지 외교정책의 일환 이라는 점이다. 반면 소련은 제3세계 국가, 특히 중동국가들과 남미, 아시아 국가들을 겨냥하여 사회주의와 평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무조건적인 제3세계 지원 외교 정책을 폈는데, 이 또한 주된 목적은 특히 중동지역의 산유국들을 겨냥, 특히 이란과 이라크 정부의 환심을 사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4차 중동전쟁은 세계 석유 위기로 말미암아 에너지 안보의 실질적인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시대인데, 주목할 점은 OPEC의 멤버 국가들

---

1. 트루먼 독트린은 미국은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자유와 독립의 유지에 노력하며, 소수의 정부 지배를 거부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하여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정책임.
2. 아이젠하워 독트린은 1956년 제2차 중동전쟁(수에즈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한보 후퇴한 이후 공산주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동지역 내 미군의 주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중동 국가들에 대해 경제 원조를 하는 정책임.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을 대상으로 석유 금수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이다. 이 당시 미국의 메이저 에너지 회사들은 닉슨에게 미국의 친 이스라엘 일변도인 중동 정책을 재고 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는데, 이 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중동지역을 대체하는 석유 수입선의 다변화 정책을 적극 모색하게 되었다(Yergin, 2006).

IV. 미국의 대 중동 에너지 벨트 구축 전략과 최근 입지

1. 미국의 역내 삼각관계 이용 전략(tri-angular)과 당근과 채찍의 석유 전략(carrot & stick policy)

미국은 영국정부의 소개로 중동지역에 진출해 오면서 줄곧 영국과 한편에 서서 러시아를 방어하는 입장을 취해오다가 제2차 세계대전과 제4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영국을 제치고 역내 슈퍼파워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대와 1930년대에도 영국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넣어 지속적으로 스탠다드오일(Standard Oil)이나 텍사코(Texaco) 등 자국의 석유회사들과 베즈탈(Bechtel) 같은 건설회사들을 꾸준히 중동지역에 진출시켜 왔었다. 미국은 결국 1928년 7월에 이라크의 석유 자원 채굴권을 획득하는 등 특히, 영국이 이란정치에 깊게 관여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라크와 사우디 아라비아에 공을 많이 들여오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에 이어 중동지역의 진정한 실력자로 본격 부상하였다.

미국의 대 중동전략에는 하나의 공식화된 일관성이 존재한다. 미국은 지역내 석유 산업 장악을 최종목표로 두고, 지난 거의 90년간 획일적으로 중동국가를 상대로 우선 당근 정책을 구사해오다가, 제시한 석유사업 혹은 거대 인프라구축 관련 계약과 협상이 무산될 경우, 외교노선을 전쟁이나 경제적 제재 같은 강경책으로 회선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펴왔다. 특히 이러한 정책

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에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우디 아라비아는 소위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최대 우방국이자 모범생 역할을 하는 국가로서 크게 미국과 마찰을 빚은 경우는 제 4차 중동 전쟁 이후 미국을 상대로 유가를 상승시키고, 금수 조치를 시행한 것이 전부였다.

미국과 사우디와의 관계는 1933년 9월 23일 미국의 석유회사인 스탠다드 오일 캘리포니아 브랜치 회사(Standard Oil Company of California)에서 보낸 두 명의 지질학자 크러그 헨리(Krug Henry) 버트 밀러(Bert Miller)가 사우디국왕 압둘 아지즈 이븐 사드로부터 석유시추를 허가 받으면서 처음 이루어졌다(Lippman, 2004). 그 당시 미국은 경제 대공황으로 힘든 시기였고, 사우디는 지구상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였으나, 양국은 석유와 안보를 서로 맞교환하면서 양국관계의 기본 틀 을 설정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2차 세계대전 중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는 사우디 국방 안보를 약속하였으며 1951년 양국은 포괄적인 안보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Norman, 2008). 사우디 국왕이 석유 시추 파트너 국가로서 영국보다 미국을 선택한 배경에는 그 당시 주변국가인 이란과 이라크에서 영국이 식민지 지배형태의 석유시추를 해왔던 것을 두려워해서 사우디 내 전반적으로 영국에 대한 반감이 컸기 때문이다. 그 이후 미국과 사우디 합작 석유회사인 아람코(ARAMOCO)[3]가 미국과 사우디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최근까지 양국은 약 80년간 대표적인 정치 가문 수준에서 끈끈하고 탄탄한 석유, 안보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Vitalis, 2009). 그러나 주목할 만 한 점은 최근에는 사우디 내 반미 세력도 상당수 존재 한다 라는 점이다.

미국과 이라크와 이란의 관계는, 사우디와는 대조적으로, 다소 '업(up) & 다운(down)' 형태의 관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이들 양국과 한때 긴밀한 관계 형성을 맺기도 하였으나, 이란과 이라크 정치

3. 아람코 회사는 1933년 SOCAL이 사우디 국왕으로부터 석유 시추개발 허가를 받은 이후 미국 석유회사 TEXACO와 합병을 한 이후 세계에서 6대 최대기업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1940년대에는 일부 지분을 Exxon과 Mobil에 매각을 하면서 회사의 규모가 한층 더욱 커지고 1940년대와 1970년대 사이 산업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합작회사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 자산 보유 2위인 Exxon Mobil회사의 성공요인은 아람코 성장에 기인한다.

지도자들은 미국이 이란,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의 미묘한 삼각관계를 교묘히 이용하는 와중에서, 미국에 대해 실망을 하고 보복의 대가로 과감하게 국영화 정책을 시행하여 미국의 자국 내 석유사업으로 진입을 차단하는 등 극도의 반미 정책을 고수해 왔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일관적으로 우선 대통령 특사를 앞세워서 특히 이란과 이라크를 상대로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등 각종 유화책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특히 미국은 베즈달이나 할리버튼 같은 방산회사나 에너지 회사들을 앞세워 전형적인 무기 패키지 딜 혹은 파이프라인 및 인프라 건설 카드를 적극 제시하는데, 협상이 결렬되고, 이들 국가들의 석유 협상 파트너 국가로서 러시아나 중국이 선정되면 철저하게 응징을 해왔다. 이 같은 미국의 전략은 1980년대 이라크 후세인과 미국의 레이건 정부 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가 무산된 베즈달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서 잘 드러났다. 또한, 2003년 제2걸프전 발발 당시에도, 미국정부는 이라크 후세인의 미국을 제외한 강대국들과의 대규모 유전사업관련 생산 분배 협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 체결 결정에 진노를 감추지 못했고 결국 이는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대 중동 전략은 이라크뿐 아니라 이란에게도 그래도 적용되었다. 한때, 이란의 팔레비 정권은 과거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으로 불릴 만큼, 당시 미국의 최대 우방이었으며 미국 방산업자들의 최대 무기 구매자였으나, 이란 혁명 이후 미국의 이란 석유산업에 대한 진출이 불가능해지자 양국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또한 한때, 장밋빛 같던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는 미국이 이란 석유 수입의 지렛대로서 사우디 아라비아 옵션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Cooper,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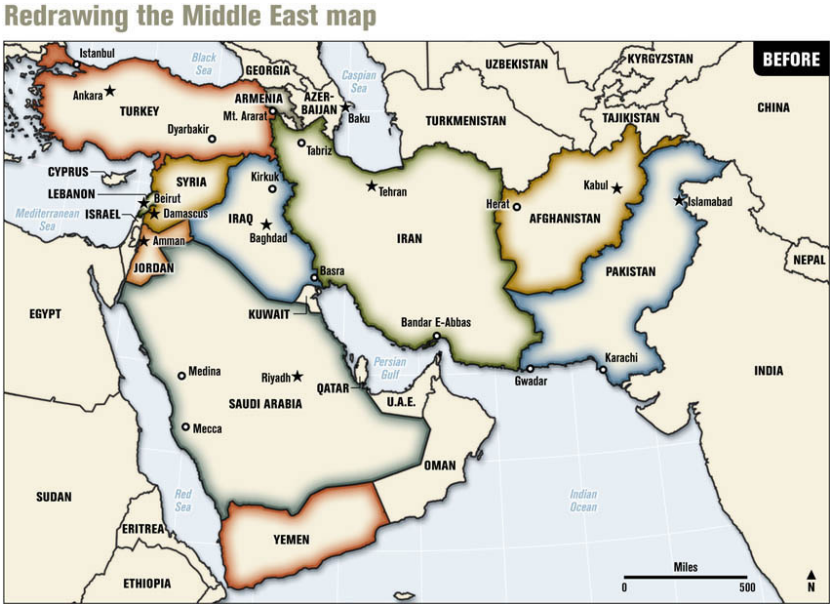
특히,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는 역내에서 지난 1세기 동안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최근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스라엘 및 이슬람 종교 단체에 대한 정책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중동지역에서 이란의 시아파에 대적할 수 있는 중동국가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그들을 상대로 최대 한 지원을 해왔다. 그 예로 미국은 특히 상황에 맞추어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슬람 수니파 그

룹 들을 전략적으로 끌어들여 이란의 지렛대로 이용해온 것이다.

심지어 미국은 한때 이란 시아파에 대적할 수 있는 과격 수니파 그룹을 끌어들여 재정적 지원 혹은 무기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최근 탈레반에서 찾을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탈레반을 지원하게 된 배경에는 이란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는 따라서 최근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전쟁 역시 근원지는 미국과 이란의 관계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당초 탈레반 그룹을 접촉할 시, 이란을 역내에서 고립시키기 위하여 탈레반 조직이 이란의 시아파를 견제할 수 있는 제2의 사우디아라비아가 같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탈레반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당초 예상과는 반대로 미국을 역이용하고 오히려 미국에게 백파이어(Backfire)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미국이 1980년 전후해서 탈레반을 중동지역과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반 소련 세력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 초기에는 실효성을 거두었지만 결국 탈레반은 알카에다 테러 그룹과 연계해서 반미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9·11 테러 주범의 공모자로 인식되었고, 미국이 역내에서 석유 전략을 펼치는데 최대 걸림돌이 되는 세력으로 고착화되어 버린 것이다(Brisad and Dasquie, 2002).

2. 에너지 벨트 라인 구축 전략

미국은 냉전이 시작된 이래 지난 약 70년간 일관성 있게 중동지역에서 타 국가들이 역내 에너지 벨트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 억지(Deterrence)와 봉쇄(Containment) 정책을 구사해 왔다. 실제로 미소 냉전의 기원은 단순히 양 국가 간 이데올로기의 충돌이 아닌 중동지역에서 석유이권 쟁탈전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미국은 소련이 이 지역으로 남하해서 석유산업으로의 진입을 사전 저지하기 위하여 역내 국가들을 포섭할 목적으로 투르만 독트린과 아이젠하워 독트린을 국제원조(ODA) 형식으로 포장해서 공표한 것이다. 특히 이 지역에서 중동과 카스피



출처: http://www.oilempire.us/new-map.html(검색일: 2014/11/28).

그림 4. 중동 에너지 벨트 라인

해 지역을 동시에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즉, 에너지 하트랜드(Heartland)를 공략해서 에너지 벨트 라인을 완성하는 프로젝트는 금세기 미국 외교 정책의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림 4에서 나타나듯이, 시리아,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에너지 벨트 라인을 형성하는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진출과 지배력은 향후 미국의 굴기와 유일무이한 슈퍼 초강대국의 입지를 돈독히 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 에너지 벨트라인은 글로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 그 이유는 동일선상에 위치한 국가들 중 이란과 이라크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석유와 가스 매장량과 생산량 측면에서 모두 전 세계 3위권 안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국가들은 최근 에너지 안보 개념에서 새롭게 중요한 개념으로 부곽 되고 있는 에너지 수송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다. 다시 말해, 에너지 벨트 라인은 석유지정학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미국, 러시아, 중국 관점에

서 이들 국가들은 중동과 카스피해 지역의 에너지를 확보하고 자국에 유리하게 해상이나 육로로 수송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교두보이자 요충국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에너지 벨트에 속한 국가들은 강대국들이 상대방 라이벌 국가들의 에너지 수송을 단숨에 끊어 질식시킬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에너지 쵸크 포인트(Energy Choke Point)의 기능 또한 제공한다 라는 점이다(Ahn, 2014).

따라서 미국은 중동지역에서 기존의 우방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 신흥 친미 세력국가들인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와의 우호관계 유지는 물론이거니와, 이라크, 이란으로부터 안정적인 석유 확보뿐 아니라, 석유수송루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으로서는 역내 국가들에다가 공군 기지를 건설하거나 강력한 해군력을 동원하여 태평양과 대서양 석유 수송로를 확대 관리 운영해서 지배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지역 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일부 중앙아시아 스탄 국가들과 같은 친미 친 서방 성향이 강한 국가들을 설득하여 이들 영토 내에 미군 공군기지를 건설 하였다.

최근 들어서도 미국의 대 러시아와 대 중국의 중동지역으로의 진출 봉쇄 정책은 계속해서 포착되는데, 제2차 걸프전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실제로 미국이 전쟁을 개시한 시점인 2003년은 유엔의 대 이라크 제재가 종료되는 시점이었으며 중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의 이라크 진출을 모색하는 시점이었다. 이를 사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전쟁이라는 초강수를 2003년에 던진 셈이다. 중국은 실제로 본 논문의 V절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겠지만, 유엔 제재 기간 중에서도 이라크에 자국의 무기 및 IT 산업을 적극적으로 진출시켜 왔다(Norman, 2009).

같은 맥락에서, 아프가니스탄 또한 미국에게 있어서는 중동과 카스피해 석유의 흐름을 모니토링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에너지 벨트 라인 지역으로의 진입을 차단하고 동시에 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석유 지정 안보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은 국가이다. 아프가니스탄은 클린턴, 부시 정권 때부터 추진해온 TAPI(Turkmenistan, Afghanistan, Pakistan, India)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결 사업에서 사업승인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통과국가

(Transit Country)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는 민주당 공화당 당파를 초월하면서까지, 이 파이프라인 연결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거의 10년 넘게 탈레반 정권을 상대로 강한 설득에 나섰으나 결국 오사마 빈라덴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탈레반 정권은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였었다(Brisard and Dasquie, 2002).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집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앞서 언급된 TAPI 가스관 사업에서 보았듯이,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이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양해를 구해야 하는 국가이다. 투르크메니스탄에 특별히 관심이 쏠리게 된 배경에는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주요 에너지 지각변동의 현상 중 하나인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매장량의 잠재성과 관련이 깊다.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기존의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는 실제 기존에 알려진 매장량보다 2~3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판명되었다(Paik, 2012).

둘째, 이란과 인접한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고, 궁극적으로 이란 에너지사업에 대해 재진입을 노리는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인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프가니스탄은 실제로 미국으로 수출 가능하거나 미국이 직접 확보하고 싶을 만큼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에너지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지구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증거는 이미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도 찾을 수 있는데 이 당시 첨예화된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의 주 무대가 아프가니스탄이었으며, 1980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도 이러한 맥락에서 동일하게 인식 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진출하여 미군 공군기지를 건설할 경우, 지정학적 및 국제정세 측면에서 그 파장과 위력은 대단한 셈이 된다. 그 이유는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의 영토가 되며 미군이 직접적으로 이란, 러시아, 중국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최상의 지정학적 시나리오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은 러시아가 이란, 중앙아시아, 페르시아만, 인도양까지 남하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으며, 중국이 육지로는 카스피해와 중동지역까지, 해상으로는 인도양에서 페르시아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철저하게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페르시아만에서 이동하는 중국의 유조선의 동향, 즉 중국의 에너지 수요 소비패턴 및 전반적인 에너지 흐름(Energy Flow)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대 중국 에너지 전략과 대 중 에너지 봉쇄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할 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진출은 이란에게도 안보 위협이 되는데, 이란은 미군의 공군지기가 국경에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선뜻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와의 중동지역에서 패권 경쟁에서 불리하여 매우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으며 향후 핵무기 추진 사업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3. 최근 미국의 중동 시프트: 최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갈등 고조 분석의 기법(Levels of Analysis)으로 조명

최근 미국과 중동지역과의 역학관계는 논문 앞부분에서 언급되었듯이,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의 삼각관계의 틀을 상대로 어떤 피벗 플레이(Pivot Play)를 하느냐에 따라 설정이 되며, 최근 상황은 이러한 큰 틀에서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최근 사우디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이란과의 관계를 급진전 시키는 등 대략 30년 만에 대 중동정책을 크게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2003년 이라크 침공으로 인하여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9·11 테러 사건과 오사마 빈라덴 사살 사건으로 인하여 양국 간의 관계가 역대 최고로 악화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Cooper, 2011; Bronson, 2006).

여기서 미국과 사우디 관계의 악화를 분석의 기법(Levels of Analysis)을 통해 재조명·분석해 보면, 현재 미국과 사우디 갈등고조는 미국이 기존의 대 중동정책과 역내 그레이트 게임 전략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역력히 보여준다. 우선 사우디 아라비아는 국내적 관점(State Level)에서 보면, 2005년 8월 반 공산주의의자이자 친미 성향이 강했던 파드 국왕의 서거 이후, 미국으로부터 자주노선을 추구하자는 국내적 여론이 팽배해졌다. 여기에는 사우디가 지난 10년간 국내적으로 인구 폭발 증가 현상을

보이면서 실업률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미국은 사우디 정부의 계속되는 유가 인상 요구에 반하는 정책을 선택하면서 사우디는 경제적으로 매우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미국과 마찰이 생기게 된 것이다(Bronson, 2006).

또한 양자간의 관계(Intra State Level)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오래 동안 양국 간 예민한 사항이었던 미국의 팔레스타인지역에서 무조건 이스라엘 편들기 정책은 사우디 국민과 정부로부터 항상 반미감정의 불씨로 남아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유가 마찰 이슈 이외에도, 사우디 정부는 미국 이외에 중국 등 다른 국가들로부터 방산 무기를 수입하게 되었다. 9·11 테러 이후 미국 내 사우디의 이미지는 마이클 무어의 화씨 9·11 다큐멘터리와 존 케리(John Kerry) 당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연설에서 잘 나타났듯이 거의 적성 국가로 묘사되었으며 양국의 국민감정은 서로 역대 최악의 경지에 다다르기도 하였다. 또한, 2003년과 2004년 사이 사우디에 거주하던 10,000여 명의 미국인들이 사우디를 떠나는 사태도 연출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04년부터 공식적인 정부차원에서 미국과 사우디 양자관계는 사우디가 미국의 대 글로벌 테러전쟁에 적극 가담하고 지원하면서 상당부분 회복되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 정서와 여론 차원에서는 양국 간에 불신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미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현재 미국과 사우디 관계는 한 시대 사제지간 혹은 신혼으로 묘사되던 장밋빛 시절로 회귀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비 하다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사우디 젊은이들이 예전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으로 유학하는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이로 말미암아, 장기적으로 사우디 내 정치, 경제, 교육계 친미 그룹의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또한, 더 이상 사우디는 미국에 대해 경제적으로 목 메이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중국, 러시아, 유럽 옵션들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역량 또한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Lippman, 2004).

또한 국제시스템(System Level)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미국은 최근 사우디로 부터 원유 수입 이외에 다른 수입 옵션이 많이 생기면서 원유 수입채널이 상당부분 다변화되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새로운 아프리카 옵션

들을 많이 가동하였으며, 최근 국내 셰일가스 및 새로운 오일 혁명으로 인한 국내 오일 생산 증가로 인하여, 2014년에는 세계 석유 산유국 1위 자리를 거의 몇십 년 만에 재수성하였고, 그밖에 향후 키스톤(Keystone) XL 파이프라인 가동 프로젝트 및 캐나다 옵션 등으로 인하여 1970년대 닉슨 정권시대부터 추진해 오던 국가적 숙원 사업인 에너지 자립화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해졌다. 이러한 점들은 곧바로 중동지역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듯이, 최근 미국의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으로부터 원유 수입은 실제로 많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같은 원유 수입 감소가 미국의 전면적인 사우디 혹은 중동 개입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여전히 중동지역은 미국의 외교 정책의 비중과 순위에 있어서 단연 최우선 순위에 랭크되어 있다.

실제로 미국과 사우디 관계는 1998년 이후 몇 가지 이상 징후들이 포착되기 시작하였는데, 미국의 중동에서 최근 입지 변화와 사우디와의 관계 악화 원인 관련 구체적인 사건들을 분석하면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사우디 정부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1983년부터 지속되어온 저유가로 인하여 90년대 말 국내적으로 극심한 재정악화를 겪었었다. 따라서 미국에게 금융지원을 요청했고 동시에 유가 인상을 주장했으나 도리어 클린턴 정부는 2000년에 미국의 전략적 비축 석유(SPR)를 방출하여 국제유가를 하락시켰고 이는 양국 간 큰 마찰로 이어졌다.

2) 사우디 국왕 압둘라 압둘 아지즈와 왕세자 술탄은 2003년 미국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과 이라크 관리 문제에 관하여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였으며, 이는 사우디 정부가 국내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미국 편중의 기존 무기구매 시스템 체재를 과감히 개혁,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까지 이어졌다(Bronson, 2006).

3) 더욱이 사우디 정부는 2003년 미국의 Exxon Mobil이 제시한 가와르 유전사업과 홍해개발 사업 2개의 석유계약을 거절 하였으며, 러시아 Lukoil, 중국 Sinopec, 스페인의 Repsol 및 YPE, 이탈리아 ENI와 가스 계약 협상을 체결하였다[결국 이 계약들은 경제성 문제로 최근 무산되었다](Norman,

2009).

4) 2011년 9·11 테러 당시 항공기 납치에 가담했던 알카에다 조직원 19명 중 15명이 사우디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사우디 정부가 오사마 빈라덴과 알카에다 조직에다가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오사마 빈라덴 사살 사건 이후 양국 간에 관계는 역대 최고로 악화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카드를 적극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5) 미국이 2003년 미군의 주요 사령부를 사우디 술탄왕자 공군기지에서 카타르로 재배치한 사건은 양국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6) 한편 2008년 고유가 당시에 유가 조정 관련해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 체니 부통령, 보드먼 에너지부 장관은 사우디를 방문해서 사우디 측에게 원유를 추가 증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우디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미국의 사우디 길들이기와 이라크 관리는 당초 예상보다 쉽지는 않은 상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은 2013년 말과 2014년 들어서면서부터 이를 이미 견지 하였듯이, 미국 중동정책의 키를 이란 쪽으로 틀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이란에서 친미 정권이 출현함에 따라 미국과 이란의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심지어 중동 내 이슬람 무장단체 ISIS 격퇴 문제를 두고 미국과 이란이 공동보조 내지 협력을 취하는 등 현 중동 정세는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이란카드를 효과적으로 꺼내 들면서 다시 중동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좋은 입지를 나름대로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이 한때 마치 과거 이란의 시아파를 견제하기 위해 수니파를 적극 이용한 것과 매우 흡사하다.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이 기존의 중동정책과는 대조적으로 현 이라크, 사우디 정부에 대하여 이란의 시아파를 이용해서 수니파 정부나 그룹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화해무드는 사실상 양국에게 모두 윈윈(Win-Win)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80년 이전까지 이란 정부를 상대로 구사해온 미국의 이란 내 석유와 가스 부문 관련 진출 대가로

각종 사업 패키지 물량공세를 지원하는 전형적인 에너지 토탈 외교 방식(지분 분배 문제, 무기제시, 회사 합병)전략을 다시 재가동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여기에는 2010년 들어서부터 천연가스의 시대가 적극 도래하면서 이란의 미개발된 천연가스 인프라 구축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 되는 것이다. 또한, 이란에게도 오랜 기간 중동지역에서 사우디와 이라크 수니파에 빼앗겼던 패권을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라는 계산도 서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란의 가스 인프라 시설 구축 관련해서 미국 정부와 서방의 세계 메이저 에너지 회사(International Oil Company, IOC)들은 앞으로 적극 진출을 시도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 회사들이 가스개발 처녀지인 이란으로의 진출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적극 저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란 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 인프라 설비 구축사업은 향후 몇 년간 중동 에너지 정세와 중동정치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것이다.

V. 러시아와 중국의 대 중동 전략과 입지 전망

1. 소련과 러시아

러시아는 몇 세기에 걸쳐서 오스만투르크와 수차례 전쟁을 벌여왔으며, 19세기 말과 20세기에는 영국과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면서 유라시아 대륙을 점령하기 위해 계속 남하정책을 추진해왔는데 그것이 중동지역 개입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소련은 실제로 제1·2차 세계대전부터, 냉전시대를 걸치면서, 현재까지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 행사 측면에서 미국, 영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특히 스탈린은 이란에 대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와중에도 영국, 미국과 함께 이란의 석유 산업 진출에 대하여 이란 정부와 집요한 협상을 계속해서 벌여왔는데, 심지어, 2차 대전 종료 후에는 이란에서 소련군 철수 조약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란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않았다.

소련은 제2차 중동전쟁 이후 미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중동에 개입하게 되었는데 냉전시대에는 미국에 비해 이 지역에서 상대적 우위를 선점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서시베리아 지역에서 성공적인 원유 시추 개발로 인하여 충분한 경화(hard currency)를 축적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긴 여유자금으로 자국 내 무기 기술력을 향상 시킨 이후, 중동 전선에 무기 패키지를 전 방위적으로(때로는 원조 형식으로, 때로는 저렴한 우호국가 가격으로) 투입하면서 중동국가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하였다(Reisinger, 1992). 그 대표적인 예로, 소련은 1970년대부터 이라크와는 1972년에 우호협력 조약을 체결하여 무기 공급을 하였으며, 1970~80년 사이 리비아에는 12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또한 남예멘에는 직접 친소 정권을 수립하였으며, 사우디 홍해 맞은편에는 자국의 군사시설을 구축하였고, 1978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 군사기지를 설치하였고 친소 공산 정권을 수립하기도 하였다(박병구, 2006).

그러나 소련 붕괴와 냉전 종료 이후, 러시아는 자국 내 구소련 최대유전지역인 체첸 지역을 완전 장악하기 위하여 미국과 암묵적으로 타협하면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카드를 미국에게 양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현재 에너지 벨트 라인에 위치한 4개의 국가들 중 시리아와 이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불포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이란과 미국의 긴장 관계가 화해무드로 조성됨에 따라서 다소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시리아 내전 학살 사태에 관해서는 러시아는 무조건 반미 전선을 구축한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구사해오고 있다. 만일 시리아가 미국의 영향력 범위 안에 들게 된다면, 러시아는 에너지 벨트라인을 기축으로 하여 완전히 봉쇄가 되어 중동지역으로 활로가 전격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최근 이라크에서 입지가 예상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 한 예로, 미 국방장관 척 헤이글이 오바마와 ISIS 대응책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도중 사퇴 하는 등, 2014년 한해 미국이 보여준 대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대비책은 한마디로 실패작에 가깝다는 점이다(New York Times, 2014/11/25). 주지할 점은, 이러한 미국의 허점과

틈새는 분명 러시아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러시아도 현재 ISIS의 위협에서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지만, ISIS와 미국이 주도가 되는 국지전의 혼란 가운데서 러시아는 나름대로 챙길 틈새 요소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와 중에서도 지난 1세기 동안 이루지 못하던 러시아의 세기의 과제, 즉 대 이라크 진출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절대적으로 절망적이지 만은 않다.

한편, 러시아는 향후 지속적으로 중동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 라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과거 중동에서의 발자취를 감안할 때, 현재 중국만큼 미국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거나 혹은 무리할 정도로 공세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란의 핵 문제 해결 방안과 이라크 내전 대처 관리 측면에서 고의적으로 미국과 각을 세울 수도 있고, 시리아 문제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기존의 반미 입장 정책을 고수할 확률이 크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중동지역과 아프가니스탄에 걸치는 에너지 벨트 전선을 완성화시키는 프로젝트는 절대적으로 저지하는 것이 러시아의 대 중동 전략의 주요 기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수습과 카스피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중동지역보다는 더 시급하기 때문에 미국만큼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신경 쓸 여력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러시아가 사우디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다소 제한적이고 시기상조이며, 이란과의 관계도 현재로서는 미국과 이란의 관계 개선 여부에 따라서 추후에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 구체적인 예로 러시아가 추진 중인 사우디 내 러시아 석유 회사 루코일(Lukoil)과 사우디 아람코가 추진한 룩사(Luksar) 프로젝트도 현재 거의 진행이 더딘 상태이다. 사우디는 1970년대 이래 외국에 개방하지 않던 가스분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였으며, 2003년부터 가스개발 촉진 정책(Saudi Gas Initiative)에 따라 외국기업과 투자유치 협상을 추진해왔다. 그 예로, 루코일과 사우디 아람코는 2004년 3월 사우디 북부지역에 대한 가스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 회사는 가스전 개발을 위해 합작기업인 룩사 에너지회사(Luksar Energy Ltd.)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

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사우디가 러시아에게 석유자원에 대한 이권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볼 수 있다(안세현, 2014).

2. 중국

중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힘의 공백(Power Vacuum) 징후가 포착되는 지역 만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중동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중국은 중동지역에서 최근 미국의 허점이 포착되고 있는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세 국가를 상대로 마치 아프리카에서 진출 성공사례를 재현하듯이 전 방위적으로 에너지 토탈(Total) 외교를 펼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약점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하는 경향이 많은데, 바로 이러한 점이 미국으로부터 불만을 크게 불러일으켜, 미중 충돌을 야기시키고, 급기야 미국의 중동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현재 중국의 대 중동 전략은 과거 냉전시대, 소련이 구사해왔던 중동 전략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에 대해 전례 없이 매우 도전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은 앞서 언급한 중동 3개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무기 공급 및 군사 기술 지원 약속도 서슴지 않고, 중동에서 인도양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 이르는 자국의 에너지 해상 루트를 확보하겠다고 국제사회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행보는 미국 정부에게는 매우 도전적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이점은 특히 중국이 중동 지역 내 영향력 행사 차원에서 지난 1세기 동안 전무후무한 국가였고, 지난 10년 사이 새롭게 가세한 후발주자임을 감안할 때, 미국은 물론 이거니와 러시아 및 서방 국가들로부터 큰 견제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2001년 9·11 사태와 2011년 오사마 빈라덴 사살 이후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소원해진 틈을 타서, 사우디 진출에 박차를 가해왔다. 중국은 원래 사우디 원유의 단순 구매에만 치중해오다가 근래에는 적극적으로 사우디

내 유전 개발과 생산권 취득과 자산매입에 더 열중해 오고 있다. 또한 중국은 1980년대 중반서부터 사우디에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탄도 미사일을 대량 공급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사우디에 집중적으로 CSS-2 중거리 미사일 탄 및 미사일 발사 시스템 등 각종 무기들을 공급해오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우디는 중국에게, 미국과는 달리 하나의 망설임 없이 다소 안보적으로 예민하고 수준 높은 무기 획득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점이다(Bronson, 2006). 또한 중국은 과거 미국이 사우디를 상대로 접근했던 방식의 전 방위적 소프트 외교를 적극 펼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중국은 매년 대규모 사우디 경제 사절단을 자국으로 초청하거나, 사우디 유학생들의 자국 내 유치를 적극 홍보하면서 사우디 내 친중 세력을 배양시키면서 양국 간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특히, 현재 사우디와 중국은 에너지 부문에서 매우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사우디 아람코와 중국 석유 회사인 시노펙(Sinopec)은 석유, 가스 상류(Upstream) 및 하류(Downstream)에서 합작사업을 사우디와 중국에서 각각 계획 추진 중에 있다. 아람코는 2003년에 시노펙의 36억 달러 가치의 중국 푸진 정유시설 지분의 일부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 대가로 사우디 아라비아의 Empty Quarter 가스매장지의 B광구 천연가스 개발 독점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아람코와 시노펙은 2012년 1월에 100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정유공장 합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석유 정제제품과 화학제품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에도 착수하였다(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4; Klare, 2009). 또한 사우디의 대 중국 원유 수출량은 미국과 대조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란, 이라크 내에서는 반미 감정을 최대한 이용하고, 유엔(United Nations)의 대 이란, 대 이라크 제재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매우 공세적이고 저돌적으로 양국에 대한 투자 진출을 모색해 오고 있는데, 중국은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이란을 상대로도 사우디에 사용했던 방식으로 유사한 에너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림 5에서 나타나듯이, 2004년에 시노펙은 이란의 국영석유회사 NIOC(National Iranian Oil Company)와 1조 달러 가치의 이란 천연가스 2억 5천만 톤 물량을 25년 동안 사들인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림 5. 중국, 러시아의 이란 이라크 유전 진출 현황

다는 대가로 이란 내 최대 석유 광구인 야다바란(Yadavaran) 광구 지분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야다바란 광구는 시노펙의 해외 추진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는데, 해당 유전의 원시 매장량은 약 170억 배럴이고, 가채 매장량은 약 30억 배럴에 이르며, 해당 유전이 개발될 경우에는 평균 하루에 3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정도로 초대형 유전이다(임산호, 2014).

중국은 또한 이란 내 반미 감정을 최대한 이용하여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이란에게 수 백 개의 HY-2 Silkworm antiship 미사일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전쟁 종료 후에도 중국은 C-802 antiship 크루즈 미사일을 장착한 순찰선 20대를 이란에 추가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대 이란 행보는 미국과 중국 간에 심각한 외교 마찰을 야기시켰으며, 부시와 클린턴 정부는 이란에 무기를 공급한 중국의 방산 업체에 대하여 실제로 경제 제재를 가하기까지도 하였다.

중국은 구소련 붕괴 이후 이라크 진출을 서서히 모색해오다가 9·11 테러 이후 특히 적극적으로 현지 투자의 속도를 높였다. 현재 제2차 걸프전 이후, 중국은 이라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유전 사업을 벌여 왔고 이윤을 가장 많이 축적한 국가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이점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혹자에 의하면 중국이 거둔 수익은 극히 표면적이고, 미국 회사인 할리버튼

(Halliburton)이 이라크에서 전후 복구 사업으로 거둔 수익에는 실제로 크게 못 미친다고 전해지지만, 분명한 사실은 중국은 최근 이라크 진출한 여러 국가들 중 미국과 함께 최대 이익을 챙긴 두 개의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이다.

특히 중국은 제2차 걸프전 이후 후세인이 정권을 잡고 있던 2007년 서부터 자국의 IT 산업을 적극적으로 이라크에 진출 시켜왔다. 문제는 중국이 UN의 대 이라크 제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대기업 화웨이(Huawei) IT 회사를 진출시켰다는 점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라크에서 화웨이의 주요 임무는 후세인의 요청에 따라 미국 공군을 견제하고 방어하는 방공 시스템 구축 이였다 라는 점이다. 또한 중국은 UN의 대 이라크 제재가 거의 종료되는 시점인 2002년과 2003년 사이 수많은 자국 내 방산 회사들을 이라크에 진출시켜 전 방위적으로 투자했지만, 2003년 미국이 제2걸프전 전쟁을 개시함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이 이라크 침공한 시기가 중국의 이라크 진출 피크였던 시점과 동일하다는 점이다(Norman, 2009).

결론적으로 중국의 중동에서 입지는 과거 1차 대전 이후 혹은 냉전시대의 영국, 미국, 소련과 비교해서 아직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거리상의 한계와 아직 글로벌 파워로서의 역량과 경험 부족, 미국의 봉쇄정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았듯이, 중국은 구소련 붕괴 이후 소련의 공백을 대신하여 나름대로 역내 최대한 영향력 행사를 해오고자 여러 강구책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중동 정세는 중국의 대 중동 전략에도 그 여파가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 2013년 말부터 이란과 미국 관계가 급 호전됨에 따라서 기존 중국의 대 이란 전략에는 다소 차질이 발생할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아프가니스탄이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에너지 벨트 국가임을 감안할 때, 미국의 계속되는 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현재 탈레반의 불안정한 입지는 분명 중국의 대 중동정책과 카스피해 진출 정책에 분명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한다는 점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동시에 중요한 점은, 사우디아라비아도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하나의 동방 채널(East channel) 혹은 새로운 옵션 채널(New additional channel)로 간

주하는 것이지, 기존의 80년 동안 구축해온 미국과의 동맹 관계와 신뢰를 하루아침에 포기하면서 까지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과의 관계 수준으로 격상 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이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중동지역에서 직접적 무력개입이나 군사력 사용을 할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한 마디로 중국이 현재 중동에서의 미국의 군사력 입지를 따라 잡기에는 절대적으로 역부족 인 것이 사실이며, 반면 미국은 중국의 중동지역에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시 군사력 투입이 가능한 상태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중동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경제력 측면에서는 과거의 구소련과 엇비슷하거나 조금 우세하고, 정치, 군사력 측면에서는 구소련이나 러시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등하거나 미약할 확률이 크다.

VI. 맺음말: 중동문제 인식의 프리즘과 향후 전망

본 연구는 중동지역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간에 벌어진 새로운 에너지 그레이트 게임의 개념과 동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미국의 지역 내 에너지 벨트 라인 구축 전략과 배경 및 중국과 러시아의 대 중동 전략을 고찰하고 궁극적으로 중동정치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동문제 근원의 발단은 단순한 지역분쟁의 차원을 넘어서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붕괴 이후, 유럽열강 국가들과 러시아, 후발주자인 미국, 더 늦게는 중국이 과거 오스만투르크 역내 석유시설을 최대한 자국에 유리하게 확보하려는, 소위 강대국들의 석유에 대한 야심과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 종료 후 지역 내 민족, 종교, 역사, 인종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지역을 단순히 사막 덩어리로 인식한 채 무작위로 그어버린 국경선은 현재 모든 중동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둘째, 본 연구의 또 다른 발견은, 중동정치역학을 이해하는 분석의 틀은

크게 3가지 요소에서 설정되는데, 그 첫 번째 요소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 지역 내에서 전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강대국들 사이의 파워 게임, 즉 미국, 러시아, 중국 간에 힘의 균형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역내 3개의 지역석유강국들 간에(사우디아라비아 vs 이란 혹은 이라크 vs 이란) 혹은 2개의 무슬림 종교단체 간(수니파 vs 이란의 시아파) 주도권 경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3개 초강대국들과 역내 3개의 석유강국들, 사우디, 이란, 이라크와의 관계설정이 중동정치를 인식하는 세 번째 변수인 것이다. 특히, 이 세 번째 관계설정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이 3개의 초강대국들 중에서 단연 우위를 점령하며, 중동 3개국들을 상대로 서로 경쟁시키면서 미국의 석유 기업들과 방산기업들을 내세워 석유자원진출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지난 80년간 주로 중동 3개국들을 상대로 석유자원지분확보 및 미국에게 유리한 송유관 건설, 혹은 현지 회사들과 석유합작회사설립 등의 당근책을 제시하고 이러한 협상이 결렬될 시 철저히 응징하는 일관된 패턴을 고수해왔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미중러 모두 공통적으로 중동 3개국을 대상으로 전 방위적, 혹은 토탈(total) 에너지 로비를 펼치는 와중에서 무기 패키지나 건설인프라구축 카드를 함께 제시 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상대로 최대한 미국의 틈새를 역이용하여 도전하는 양상을 보이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에너지 벨트에 진입하는 것을 무력 억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사전 차단한다라는 점이다.

이러한 중동정치역동성을 인식하는 3개의 요소로 구성된 프리즘을 통해서 향후 전망을 해보면,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역내에서 반 시아파 이란전선을 구축해 왔는데, 최근 미국과 이란의 급격하게 발전된 화해무드 현상은 향후 중동의 힘의 분포와 균형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현재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 미국과 이라크 관계에 있어서,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는 최대변수로 작용한다라는 점이다. 또한 중동문제는 중동지역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과 북쪽으로는 카스피해 지역까지 깊게 연관 되어있으며, 최근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지배하고 있는 탈레반 세력의 형성과정 및 추후

행보, 미국과 탈레반 사이 관계설정도 중동정치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점이다.

또한, 최근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이 감소되었다는 전망은 단연히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인데, 이 점은 전반적인 미국의 대 중동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는 다소 성급한 판단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이미 기술하였듯이, 제2차 걸프전, 911사건, 탈레반 정권, 오사마 빈라덴 제거 등으로 인하여 미국과 사우디는 역대 최악의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80년간 양국의 정치 가문들 수준에서 다져진 끈끈하고 특별한 우호관계를 감안하면 미국과 사우디가 서로를 등질확률은 현재로서는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또한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와 미국과 이라크와의 관계가 상당부분 많이 호전된 것 또한 사실이다.

앞서 보았듯이, 중동 지역에서 미중러의 파워 게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영국을 대신하여 1930년대부터 서서히 중동지역에서 절대 강자로 부상한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중동국가들을 상대로, 선 회유·후 강경 전략을 구사해오면서, 시리아에서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에 걸치는 에너지 벨트 라인 구축을 완성하여 향후 중동지역에서 완전한 패권을 쟁취 한다는 것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대 중동 정책의 핵심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와중에서 현재와 잠재적 라이벌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최대한 견제 하는 것이 이 지역 내 에서 또 다른 중요한 목표인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 중동지역에서 미중러의 힘의 균형은 흔히 늑대, 산토끼, 여우가 등장하는 이솝 우화 판에 종종 비유되곤 하는데, 중동지역에서 미국은 늑대, 러시아와 중국은 여우와 산토끼의 역할을 때에 따라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여우와 산토끼가 아무리 힘을 합해도 절대로 한 마리의 늑대를 압도할 수는 없다라는 점이다(Norman, 2009).[4]

---

4. 본 연구는 저자가 에너지 경제연구원 주간 브리핑 에너지 인사이트의 분석섹션에 기고한 글을 토대로 논문 형식으로 변환하면서 그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 확장 되어 만들어졌다는 점을 밝힌다.

논문투고: 2014-12-01 심사일자: 2014-12-15 게재확정: 2014-12-21

참고문헌

박병구. 2006.『한중일 석유 전쟁』. 서울: 한스 미디어.

안세현. 2014.「미중러의 대 중동 에너지 그레이트 게임 전략」.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간 브리핑『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8월 1일, 제14-27호.

임산호. 2014.「중국의 대 중동 에너지 협력 전략 변화」.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간 브리핑『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7월 18일, 제14-26호.

이성규·박아현. 2014.「미국 에너지 자립 전망과 미국과 중동의 에너지 외교 정책 변화」. 에너지 경제 연구원 주간 브리핑『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6월 6일, 제14-20호.

Brisard, Jean-Charles and Guillaume Dasquie. 2002. *Forbidden Truth: U.S.-Taliban Secret Oil Diplomacy and the Failed Hunt for Bin Laden*. New York: Thunder's Mouth Press.

Bronson, Rachel, 2006. *Thicker Than Oil: America's Uneasy Partnership with Saudi Arab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allaghan, Marty. 2010. *Blood and Oil: the Middle East in World War I. Documentary*. Jason Media.

Cooper, Andrew S. 2011. *Oil Kings: How the U.S., Iran, and Saudi Arabia Changed the Balance of Power in the Middle East*. New York: Simon & Schuster.

Currier, Carrie Liu and Dorraj Manochehr. 2011. *China's Energy Relations with the Developing World*. London: The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Epstein, Lita. Jaco, C.D. and Julianne C. Iwersen-Neimann. 2003. *The Politics of Oil*. Indianapolis, IN: Alpha.

Jones, Bruce, David Steven, and O'Brien Emily. 2014. "Fueling a New Order? The New Geopolitical and Security Consequences of Energy." *Brookings*. March.

Kalicki, Jan H. and Goldwyn L. 2005. *Energy and Security*. Washington, DC: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Kandiyoti, Rafael. 2008. *Pipelines: Flowing Oil and Crude Politics*. New York: I.B.Tauris & CO.

Klare, Michael. 2001. *Resource Wars: The New Landscape of Global Conflict*. New York: Metropolitan Nooks.

_____. 2009. *Rising Powers, Shrinking Planet*. New York: A Holt Paperback.

Lippman, Thomas W. 2004. *Inside the Mirage: America's Fragile Partnership with Saudi Arabia*. Cambridge, MA: Westview Press.

Normal, James. 2009. *The Oil Card: Global Economic Warfare in the 21st Century*. Walterville, OR: Trine Day LLC.

Paik, Keun Wook. 2013. *Interview*. Oxford Energy Institute. London. January 30.
Reisinger, William. 1992. *Energy and Soviet Bloc*. Ithaca: Cornell University.
Venn, Fiona. 1986. *Oil Diplomacy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St. Martin's Press.
Vitalis, Robert. 2009. *America's Kingdom: Mythmaking on the Saudi oil Frontier*. Brooklyn: Verso.
Yergin, Daniel. 2011. *The Quest*. New York: The Penguin Press.
_____. 2011. *Author's Interview*. Washington, DC. 2011. 7. 5.
_____. 2008. *The Prize: The Epic Quest for Oil, Money and Power*. New York: Free Press.
_____. 2006. "Ensuring Energy Security?" *Foreign Affairs*, 85(2).
Financial Times. 2014. 11. 25.
The New York Times. 2014. 11. 26.
Wall Street Journal. 2014. 11. 26.

Anatomy of the New Energy Great Game among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China in the Middle East:

The US Energy Belt Building Strategy and its Origins

Se Hyun Ahn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
Director of the Center for Energy Security Strategic Studies
University of Seoul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anatomy of the new energy great game among three major global powers: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China in the Middle East, focusing upon the US energy belt building strategy. The article seeks to discover the origins of the Middle Eastern problem which has persisted for about one century and to establish some overarching framework to access various type of the current Middle Eastern conflict. The article contends that Middle Eastern problem was caused by the careless and senseless boundary which was drawn by the major western great powers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Ottoman Empire at the end of the World War I. The Great Britain, France and Russia considered the Middle East as simply the piece of dessert and created strange borderlines regardless of nationalities, tribes, history and religion differences in the region. This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western powers simply wanted to take control of the region in order to take massive oil fields and assets. Similar story also applies to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region after the US, Russia and China replaced the Great Britain, France and the Soviet Union decades later. Perhaps the most important discussion regarding the new energy great game in the region is special relations between the three global powers and the three regional powers including Saudi Arabia, Iran and Iraq. In this regard, this article specifically investigates the US energy pivot play strategies toward Russia, China, Saudi Arabia, Iran and Iraq respectively. The study concludes that as the new energy great game can be often compared to the tale of wolf, fox and wild rabbit, it is highly unlikely that the even combining force of a fox and a wild rabbit (Russia and China either role of these two) will ever beat one single wolf (the US).

Keywords: The Middle East, Energy Great Game, Energy Belt, the United States, Russia, China, Energy Security

안세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에너지안보전략연구센터장
서울시 동대문구 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21세기관 국제관계학과
Tel_010-5492-9207 E-mail_ahns@uos.ac.kr